**성령 강림 대축일(2018년 5월 20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벌써 사제 서품 6년이 되었네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 서품식에도 오시고, 제 첫미사에도 오시고,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 와 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기도 중에, 그리고 미사 중에 늘 기억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한 순간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을 빚고, 또 사과하고, 가슴앓이 하고, 해명하고 살아갈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리고 그것은 한 순간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그렇게 원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투지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그럼 삶이 행복해집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나 나와 똑같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고, 다들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내색은 하지 않지만 어렵게 인생의 고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사는 맛이 납니다.

미국 성당에서 저와 자주 면담을 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삶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결혼을 한적이 없고, 혼자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미사에 나오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삶이 늘 우울하답니다.

그 여자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려서 자기 부모가 이혼을 했고, 그것이 자기 삶에 너무나 커다란 상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여자와도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가끔 찾아가서 엄청 싸우고 울고 그런답니다. 그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런 답니다.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떠나버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도, 그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남았고, 그래서 결혼도 안하고 혼자 산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로 마음에 늘 화가 나 있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처는 다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의 온갖 상처들을 다 기억하고 사니까 힘이 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 드리죠.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출발 하시라고...

새 출발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의 죄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삽니다. 병이 다 나았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과거의 병을 계속 앓으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온갖 아픈 기억들 때문에 오늘을 잘 못삽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을 허비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절대 이 다음에는 행복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싸여 어두운 방안에 꼭꼭 숨어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평화를 빌어 주십니다.

이 평화는 그냥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스승 예수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스승님은 아마도 세상을 바꿀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신명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가난하고 멸시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에게 참행복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가슴 뜨겁게 인생의 사는 맛을 느끼게 해 주셨던 바고 그 분이, 세상을 구원할거라고 믿었던 그 분이, 무참히 허무하게 아무 힘없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허탈하고, 절망스럽고, 무엇보다도 그 분을 잡아 죽인 사회 지도층들, 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죄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스승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도망쳐 나왔으니, 그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꽉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이 평화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깊은 절망속에서 다시 한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새롭게 용기를 얻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목격하고, 평화를 빌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은 이제는 더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더이상 절망과 슬픔은 없습니다. 닫아 두었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기쁨과 환희로, 새로운 희망과 가득한 행복을 담고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부활의 삶입니다. 과거의 절망과 슬픔, 상처 모두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면서,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삽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여전히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박해자들은 밖에 가득한데, 부활을 체험한 그 제자들은 신나게 삽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신명나는 인생살이, 신바람나는 그 인생살이가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단지 교회에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견진 성사를 통해서 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성령!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현존 속에서 늘 기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